

[우리 동네 은빛 발자취]

연변 퇴직 로인들 노래소리 세계 음악의 전당에 울려퍼져

—메아리합창단, 2026 중—유 국제음악교류회 단체금상 수상



최근, '매력 유렵협, 원에서 소
원 달성' 2026 중—유 국제음
악교류회가 세계 음악의 전당인
오스트리아 윈음악협회 골든홀에
서 성대히 거행된 가운데 연변 메
아리합창단이 국제무대에 올라
중의 명곡을 선보여 단체금상을
손에 거머쥐었다.

연변가무단에서 퇴직한 유명
한 조선족 가수이자 메아리합창
단 단장인 김지협은 정교한 지
휘능력과 풍부한 예술적 감동력
을 충분히 인정받고 최고지휘상
을 수상하여 연변 합창 예술에
또 하나의 국제적 영예를 안겨주
었다.

유렵중국어역및문화교류협회,
령청화하국제음악축제조직위원
회, 매력석양문화화협사조직위원
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공연에
서 메아리합창단은 조선족 전통
민요 〈아리랑〉과 중국 고전 명곡
〈금슬과 은슬〉(金梭和银梭)을
차례로 불렀다. 진한 화음과 민족
적 여운이 끝날 때까지 높고 울
려퍼지며 우수한 중화전통문화
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었을 뿐

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간 문화교
류의 가교 역할을 특출히 하여 현
장 관객과 전문 심사위원들의 찬
사를 한몸에 받았다.

1869년에 준공된 골든홀은 원에
서 가장 오래되고 현대적인 콘서
트홀로 세계에서 음향 효과가 가
장 뛰어난 콘서트홀중 하나로 인
정받고 있으며 세계 전문 음악인
들의 예술성지로 손꼽힌다.

"이번에 꿈의 무대에 서서 큰 상
을 받게 된 것은 메아리합창단의
예술적 추구와 경지에 대한 충분
한 긍정이자 연변 민족 합창의 소
리가 세계 정상 무대에서 빛을 발
하게 만든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
다." 3월 25일 개신하고 귀국한
김지협 단장이 말했다.

조선족 퇴직 로인들을 주축으
로 설립된 메아리합창단의 이번
수상은 연변주 및 길림성의 민족
특색이 짙은 지방 문화예술이 세
계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장을
열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.

/허철특약기자



봉사와 사랑으로 불태우는 '석양의 열정'

—장춘시남관구조선족로인협회가 걸어온 37년

"우리는 비록 황혼에 서있지만 나라
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청춘들
보다 더 뜨겁습니다!"

지난 37년간 장춘시남관구조선족
로인협회의 회원들은 이 한마디를 가
슴에 새기고 살아왔다.

1989년 7월 23일, 조선족 리퇴직
간부와 일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
립한 이 협회는 현재 평균연령이 무려
79.6세 (그중 최고령은 94세)의 로
인들로 구성된 특별한 공동체이다.

최근, 남관구 흥성가두 동풍사회구
역에서 만난 정수이 회장은 "협회 회
원이 최고로 120명에 달하기도 했지
만 현재는 61명으로 절반 가량 줄었
다."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. 세월
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수자
로만 측정할 수 없다.



정수이 회장 (앞줄 가운데)을 비롯한 협회 지도부

◆ 당지부 설립, 지역사회와 협력

정수이 회장은 "2013년 6월, 우리
협회는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산하 10
여개 구(현, 시)급 협회중 가장 먼저
당지부를 설립했다."고 당차게 소개했
다. 현재 당원은 22명으로 당지부 설
립을 통해 조직 역량을 강화했을 뿐만
아니라 가장 먼저 사회구역과 협력해
협회를 공동 건설하는 모범을 보였다.

협회 당지부는 매년 '7.1' 당의 생일
을 경축하여 당기 앞에서 선서식을 가
진다. 정수이 회장은 "당원의 신분을
잊지 말고 대중의 모범이 되자!"는 다
짐을 되새기기 위해서"라고 말했다.

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당원들이 앞
장서 1만 1,000원을 모금해 위기를
극복하도록 무한 시민들을 지원했고
2023년에는 사회구역당지부의 호소
에 적극 호응해 4,080원을 모아 어려
운 이웃에 보내주었다.

◆ 고령자, 퇴직군인 레우... '배
려의 공동체'

협회는 지난 몇십년간 조국과 인민

을 위해 기여한 90세 이상 고령 로인
7명(그중 2명 작고)을 위해 축수연
을 두차례 마련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
음을 전했다.

매년 건군절이면 퇴역군인들을 초
청해 간담회를 열어 회원들이 그들
의 공헌을 기억하고 초심을 잊지 않
도록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
했다.

사평전역기념관, 집안 향미원초 도
강나루터와 후방근거지, 돈화유격근
거지를 방문하는 등 활동도 정기적으
로 진행한다. 정수이 회장은 "회원들
이 생활의 즐거움을 누림과 동시에 다
시 한번 혁명교양을 받게 하기 위한
취지"라고 밝혔다.

◆ '대리어머니, 향미원초 참전 용사...
'살아있는 력사'의 헌신

정수이 회장은 "협회에는 '살아있는
력사'로 불리는 어르신들이 활동하고
있다."고 자랑했다.

올해 89세인 배영애로인은 퇴직금
이 2,000원 남짓하여 가정생활이 넉
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장
춘시소년범교도소(현 길림성미성년
범교도소)와 인연을 맺은 후 선후로
8명의 다민족 소년범의 '대리어머니'

가 되어주었다. 배영애는 그들에게 필
요한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바른 길
로 나아가도록 교육, 인도하는 등
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
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. 2015년 배
영애는 '전국 차세대관심사업 선진사
업자' 영예증서를 받아안았을뿐더러
그해 북경에서 열린 《중국해협》잡
지사 창사 20주년 대회에서 자기 사
적을 발표하고 회의 기간 당시 중국차
세대관심사업위원회 주임 고수련의
접견을 받았다. 그는 또 연변 TV '사
랑으로 가는 길' 프로그램을 통해 어
려운 학생들을 돕고자 매달 100원을
기부해왔다.

94세 천재봉로인은 18세에 향미원
조선장애 참전, 류동수술대에서 3년
간 외과수술을 도우며 밤낮으로 부상
자를 구했다. 그는 방공호 안에서도
여러차례 수술과 응급처치를 해주었
을뿐더러 임신부 출산 수술에도 참여
했다. 퇴직후에는 로인협회에 가입하
여 여러차례 1,000원씩 쾌적하며 회
원들의 귀감이 되어왔다.

86세 박봉선로인은 30여년간 협회
를 위해 헌신해왔다. 중요 행사 때마
다 수천원씩 기부한 것은 물론 선후로
작고한 수십명 회원의 후사처리를 도
와주어 회원과 작고한 회원 가족들의

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다.

◆ 35주년 기념 모금 4만 9,700
원... '자발적 헌신'의 감동

2024년 협회 설립 35주년을 앞두
고 특별한 일이 있었다. 당시 협회의
장재숙 회계가 몇년간 아껴모은 5,000
원을 선포 내놓은 것이다. 이를 계기
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500~2,000
원씩 내놓아 총 4만 9,700원을 모았
는데 이 자금으로 35주년 경축대회를
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다.

정수이 회장은 "이 모든 것은 회원
들의 집체주의 사상과 협회에 대한 책
임감,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"이라고
짚었다.

35주년 경축행사에서 협회는 특수
공헌자 11명, 우수공헌자 10명, 우
수회원 19명을 표창해 그들의 공헌에
경의를 표했다.

◆ 봉사와 사랑으로 이어가는 조
선족 문화의 요람

협회 회원들은 매주 다양한 문화체
육활동을 진행하며 활력을 유지하고
있다.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, 장춘
시조선족중요예술관의 지도와 요구에
적극 호응해 각종 활동에서 우수한 성
적을 거두었으며 남관구정부 부문의
요구에도 적극 부응해 구 지도부의 높
은 평가를 받았다.

협회의 원활한 운영 배후에는 묵묵
히 헌신하는 '숨은 일꾼'들이 있다. 여
러 회원들의 정성과 노력이 협회를 더
욱 활기차게 만들고 있다.

정수이 회장은 "우리는 로인들의 황
혼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공동체로서
당의 지도 아래 함께 뭉쳐 진심으로
봉사하고 사랑으로 베풀며 조선족 문
화를 계속해서 발전시
키고 협회의 진흥 발전
을 위해 함께 노력할
것"이라고 밝혔다.

/박명화 정현관 기자



길 잃은 아이 구조해준 백순옥로인의 사적 널리 전해져

최근,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회
원들 사이에서는 중산분회 백순
옥로인(74세)이 집을 잃고 갈팡
질팡하던 세상도 안되는 어린아이
를 구조해준 미담이 널리 칭송받
고 있다.

사연은 이러하다. 지난 3월
15일, 백순옥로인은 대련시조
선족로인협회 활동에 참가한 후
집으로 향하는 뺄스에 올랐다.
뺄스가 두 정거장을 지났을 무렵
그는 배동하는 어른도 없이 혼자
뺄스에 탑승한 세상도 안
돼보이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.

세번째 정거장에서 백순옥로인
이 내리자 그동안 관심있게 바
라보던 로인의 눈길을 눈치채기
라도 한 듯 아이는 로인을 따라
뺄스에서 내렸다. 그런데 십자
로에서 붉은등이 켜져있는데도
아이의 무작정 길을 건너려고
했다.

"저 아이는 돌봐주는 집식구들
도 없단 말인가? 저러다가 교통
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떡하지?"
라는 생각이 든 백순옥로인은 무
작정 달려가 아이의 손목을 잡았
다. 그는 함께 길을 건너 후 아이
에게 가장 상황을 물었다. 아이
는 자기는 성이 리씨이고 외할아버
지와 함께 광장으로 산책 나왔
다가 외할아버지가 그만 발목을
상하여 모지름을 쓰면서 자기에
게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
저기 돌아다니다가 낮모를 어른

들을 따라 뺄스에 올랐다고 말했
다.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느낀
백순옥로인은 일단 아이를 자기
집으로 데려간 후 아들에게 파출
소에 신고하라고 분부하는 한편
아이에게 간식을 먹이면서 정성
껏 보살폈다.

친할머니 못지 않게 자기를 보살
피는 백순옥로인의 정성에 감동을
받아서인지 부모를 찾으며 안전부
절 못하던 아이는 차츰 안정을 되
찾고 백순옥로인의 가족들과 재잘
재잘 말하기 시작했다.

해질녘이 되자 다급히 문 두
드리는 소리와 함께 30대의 젊
은 부부가 백순옥로인의 집을
찾았다. 그들은 백순옥의 품에
안겨 새곤새곤 잠자고 있는 아
이를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
면서 연신 감사를 표했다. 알고
보니 이들 부부는 외할아버지가
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기별을 들
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는데 마
침 경찰로부터 백순옥로인의 집
주소로 전달받고 한달음에 달려
왔던 것이었다.

이튿날 이른 아침, 이들 부부는
식품을 한꾸레미 사들고 백순옥
로인을 찾아와 재차 감사의 뜻을
표했다. 백순옥로인은 "누구나 부
딛치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.
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
입니다."라고 말하면서 기어코 레
물을 사절했다.

/리삼민특약기자

8년을 묵묵히 부모님 병시중 든 효자 허영수



리가 깨끗하여 다친 적도 한두번이 아
니었다. 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
않았다.

"내가 있는 한 부모님을 양로원에
보내서는 절대 안된다."

그는 식이치료에 관한 도서를 들
찾아 부지런히 읽었으며 매일매일
끈질기게 실천했다. 삼라만상이 깊
이 잠든 새벽에 일어나 땅콩, 대두,
녹두, 검은콩, 팥을 갈고 우유를 넣
어 영양우유를 만들었고 양파, 당
근, 양배추, 호박, 브로콜리를 찜
솥에 넣어 살짝 쪄낸 후 믹서기로 갈아
류식을 만들었다. 하루 세끼 부모를
대접하고 나서 집안 청소를 하고 빨
래하고 의사를 청해 부모님께 링거
를 꽂아드리고 링거를 다 맞은
후에는 바늘을 뽑고 몸을 닦아드리
고... 허영수씨는 거의 매일 이른새
벽부터 밤 열두시까지 분주히 돌아
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어느새 직
장인에서 '전직 주부', 간병인으로
신분이 바뀌었다.

바빠 돌아치는 사이에 세월은 살갑
이 흘러 어느덧 4년이 지난 어느날,
부모님의 병이 큰 차도를 보이지 않
니 병환에 시달리던 아버지 허원전씨
가 그를 애타게 부르는 아들 허영수
씨와 병상에 누워있는 안해 림정숙씨
를 남겨두고 저세상으로 떠났다. 허
영수씨는 체 하지 못한 효도 때문에 울
고 또 울었다.

하지만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
었다. 허영수씨에게는 아직 그의 손길
을 바라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가?
직할동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
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허영수는
또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어머니 병시
중에 달라붙었다. 매일 한밤중이면 꼭
한번씩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드렸고
날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이른새벽에
는 파스한 꿀물을 풀어 어머니께 대
접하고는 영양식단을 만들고 세탁기
를 돌렸으며 언제나 어머니 식사 대접
을 마무리하고 나서야 허기진 배를 달
래곤 했다. 매주 한번씩 어머니의 몸

을 깨끗이 닦아드렸고 알뜰 주부처럼
집살림을 해나갔다.

병상에 누운지 6년이 넘어가면서
어머니의 잔등과 허리에 종창이 나기
시작했다. 안달아난 허영수씨는 한
국, 향향, 일본 등지에서 종창에 좋다
는 약이란 약들을 모두 사들였는데 1
년만에 어머니의 종창이 가뭇없이 사
라졌다. 참으로 기적같은 일이었다.

"년로하신 부모님은 아기와 꼭 같아
요. 열려주고 놀아주고 돌봐주어야 하
지요. 제가 아기 대하듯 어머니의 이
름을 부르면 어머니는 금방 갓난애처
럼 대답하면서 환하게 웃으시거든요.
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
가 가셔지곤 해요."

허영수씨가 다정한 눈길로 어머니
병상에 다가 "림정숙씨~" 하고 부
드럽게 부르자 어머니는 "오~" 하고
대답하면서 어린애처럼 뺨쪽 웃어보
였다. 오직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
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은 보는 이들의
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.

"제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러
십니까? 누구나 제 앞에 닥치면 다 할
수 있는 일이지요. 부모님은 우리를
이 세상에 낳아주셨고 사랑의 품으로
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. 5남매중 맏
아들인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생
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
나도 응당한 일이 아닙니까?"

진지하고 소박한 허영수씨의 말 속
에는 겸허하고 바른 심성과 착한 마음
이 그대로 엿보였다.

순간, 작고 왜소한 체구의 허영수씨
가 더없이 위대해보였
고 허영수씨가 지키는
림정숙씨의 집은 유난
히 밝고 따뜻해보였다.

/홍룡강신문

